

2017. 06. 12. ~ 2017. 06. 18. 주간

140
VOL

전남농업정보

기상전망

농산물 주간 동향 (관측정보)

- 사과 · 배 · 복숭아 생육 및 가격
- 단감 생산량 및 개화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홍차용 품종 개발 착수, 국산품종으로 유기차배 수출단지 조성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저비용 · 고소득 농업기술정보

- 전남농기원, 1시군 1특화작목 육성 박차
- 가뭄 대비한 밭작물, 똑똑한 물 관리가 관건

정책동향

- 전남도, 가뭄 · AI 대책 35억원 추가 지원
- 소 사육농가 귀표 미부착 등 일제검사

사업신청 및 홍보

- 도라지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하세요
- 전남도, 우박 피해 농가 트라우마 무료 심리상담



전남농업기술원

목차 및 요약

1. 주간 기상전망 5

- ▶ 26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18~21도, 최고기온: 24~28도)보다 높다가, 후반에는 비슷하겠음
- ▶ 강수량은 평년(8~19mm)와 비슷하겠음

2.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 8

- ▶ 주의보 :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복숭아순나방 등
- ▶ 예 보 : 벼물바구미, 멸강나방, 이화명나방, 역병, 탄저병 등

3.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9

- ▶ 사과·배·복숭아 생육 및 가격
- ▶ 단감 생산량 및 개화

4.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12

- ▶ 홍차용 품종 개발 착수, 국산품종으로 유기재배 수출단지 조성

5.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13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6. 저비용 · 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15

- ▶ 토마토(헤이-마루)
- ▶ 멜론 친환경 재배 시 뿌리혹선충 초기감염 회피 요령
- ▶ 광량을 이용한 고온기 파프리카 재배 생육예측
- ▶ 벼메뚜기 사육에 알맞은 여름과 겨울철 먹이식물
- ▶ 전남농기원, 가뭄극복 과수원 관리 당부
- ▶ 전남농기원, 1시군 1특화작목 육성 박차
- ▶ 가뭄 대비한 밭작물, 똑똑한 물 관리가 관건
- ▶ 색깔감자 『자영·홍영』으로 건강한 여름나기
- ▶ 체리품종 선택 시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 ▶ 새끼 돼지 섞어 기르면 농장 생산성 쑥쑥
- ▶ 여름철 닭 관리요령 제시

7. 정책 동향 32

- ▶ 전남도, 우박 피해 시설물도 풍수해 보험 보상을
- ▶ 전남도, 가뭄·AI 대책 35억원 추가 지원
- ▶ 소 사육농가 귀표 미부착 등 일제검사
- ▶ AI로 인한 가금류 취급상인 지원 검토 중

8. 전남 시군 농정 동향 36

- ▶ 여수시, 명품고구마 생산... 조직배양 우량종묘 보급
- ▶ 보성군, 퓨전떡 만들기 교육 실시
- ▶ 화순군,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 총력 대응

- ▶ 장흥군, 정남진장흥농협 『화끈한 화요 아침장터』 운영
- ▶ 강진군, 친환경 양배추 본격 수확
- ▶ 해남군, 미니 밤호박 본격 출하
- ▶ 영암군, 애플수박 첫 출하
- ▶ 무안군, 가뭄 피해지역에 예비비 긴급 지원

9. 해외 농업정보 44

- ▶ 미국, 밀레니얼 세대들의 소비패턴을 파헤쳐라
- ▶ 칠레, 건강식음료 판매 증가
- ▶ 해외 곡물시장 동향 '17. 6. 19. (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 밀 선물 가격은 건조 기후에 대한 우려로 전일대비 2.4% 상승하였음
 - 옥수수 : 밀 가격의 강세에 동조하며 전일대비 상승하였음
 - 대두 : 대두 선물 가격은 대두 가공에 대한 보고서 발표로 인해 강세를 이어갔음. 밀과 옥수수의 강세 또한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자료 : CME, KCBT, USDA, IGC, Bloomberg, Reuters, Rice Online, T-Storm weather, 中 · 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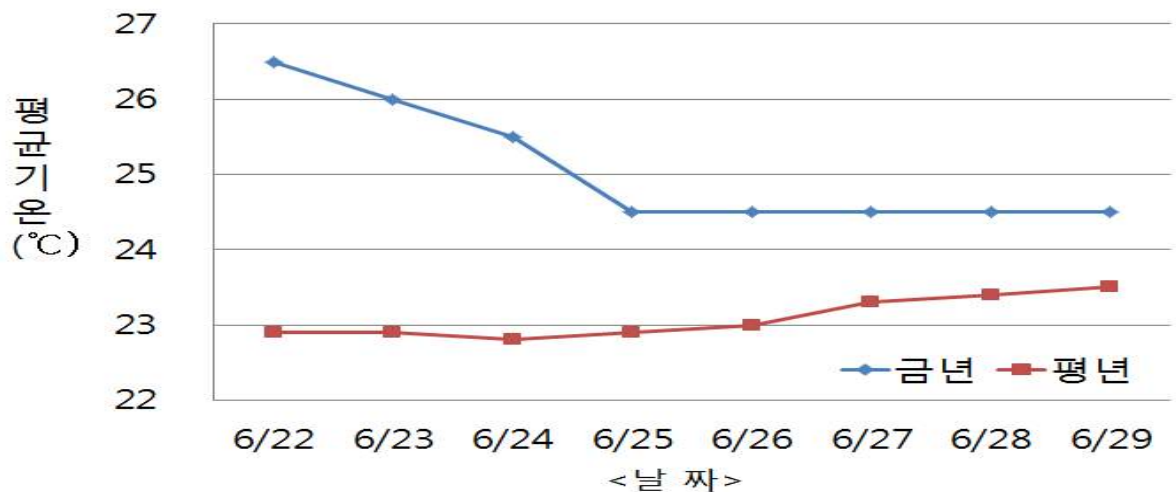
10.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48

- ▶ 도라지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하세요
- ▶ 전남도, 우박 피해 농가 트라우마 무료 심리상담
- ▶ 일 년 중 낮이 가장 긴 날, 하지(夏至)

1. 주간 기상전망

■ 기상청 중기예보(6월 22일 ~ 6월 29일, 광주 기준)

- 평균기온 : 25.1℃ (평년대비 2.0℃ 높음)
- 최고기온 : 30.1℃ (평년대비 2.8℃ 높음)
- 최저기온 : 20.0℃ (평년대비 0.2℃ 높음)
- 강 수 량 : 11.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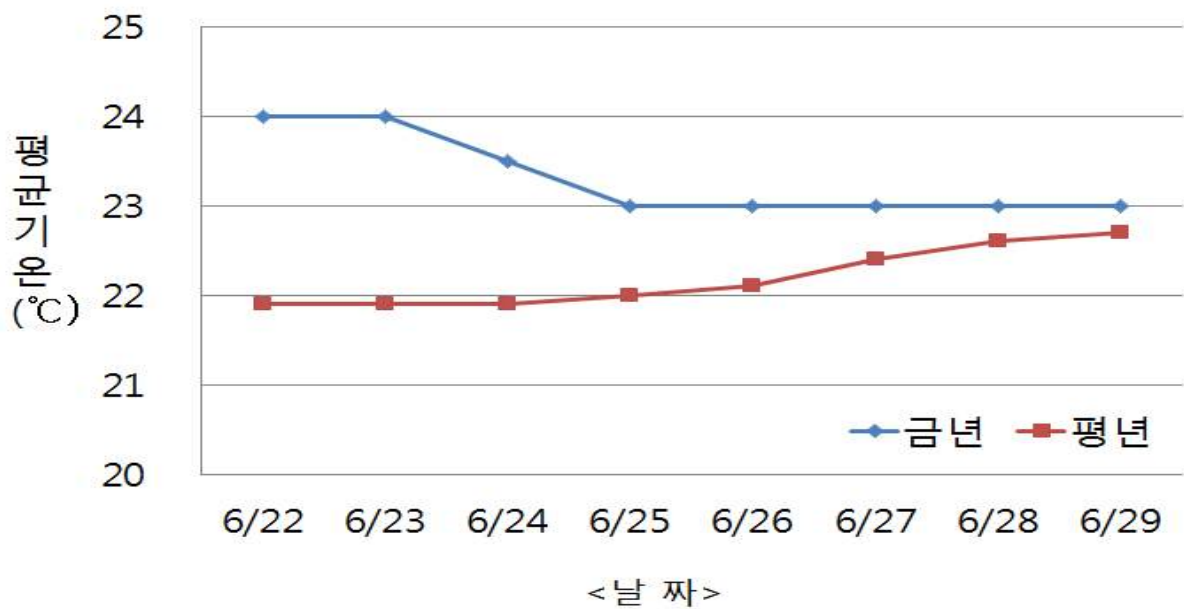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25.1	23.1	2.0	30.1	27.3	2.8	20.0	19.8	0.2	11.0
6. 22.(목)	26.5	22.9	3.6	34.0	27.4	6.6	19.0	19.3	-0.3	9.4
6. 23.(금)	26.0	22.9	3.1	31.0	27.2	3.8	21.0	19.5	1.5	11.4
6. 24.(토)	25.5	22.8	2.7	31.0	27.1	3.9	20.0	19.5	0.5	11.9
6. 25.(일)	24.5	22.9	1.6	29.0	27.1	1.9	20.0	19.6	0.4	13.0
6. 26.(월)	24.5	23.0	1.5	29.0	27.1	1.9	20.0	19.8	0.2	12.8
6. 27.(화)	24.5	23.3	1.2	29.0	27.4	1.6	20.0	20.0	0.0	10.4
6. 28.(수)	24.5	23.4	1.1	29.0	27.6	1.4	20.0	20.3	-0.3	8.4
6. 29.(목)	24.5	23.5	1.0	29.0	27.6	1.4	20.0	20.4	-0.4	10.5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6월 22일~6월 29일, 목포 기준)

- 평균기온 : 23.3℃ (평년대비 1.5℃ 높음)
- 최고기온 : 26.8℃ (평년대비 0.9℃ 높음)
- 최저기온 : 19.9℃ (평년대비 0.4℃ 높음)
- 강 수 량 : 10.7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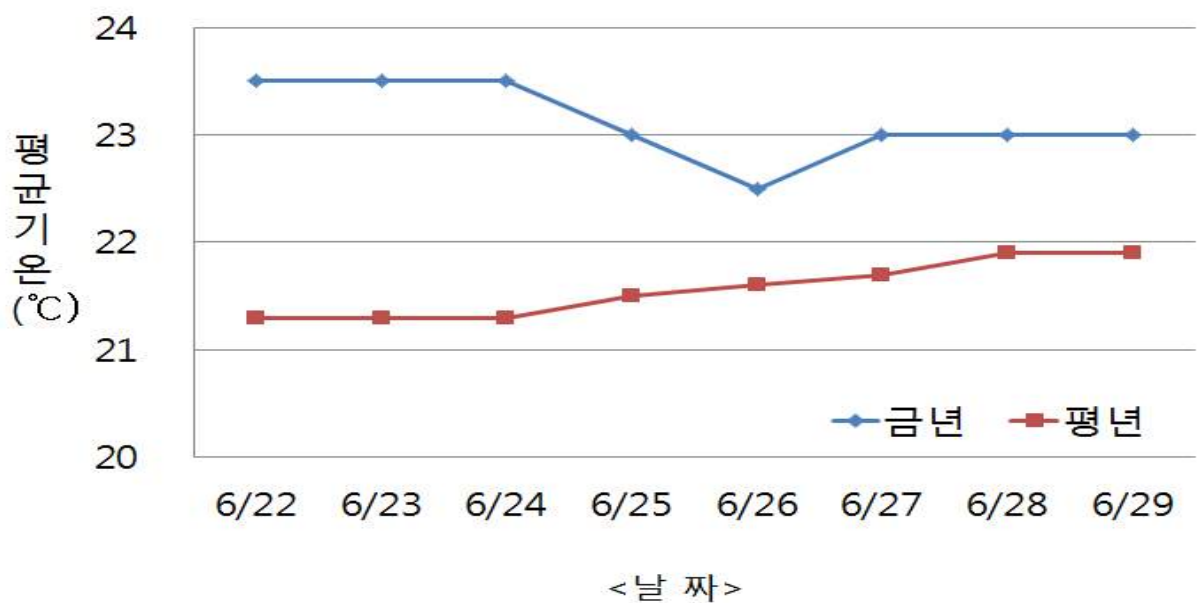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23.3	22.2	1.5	26.8	25.9	0.9	19.9	19.5	0.4	10.7
6. 22.(목)	24.0	21.9	5.0	29.0	25.9	3.1	19.0	19.1	-0.1	9.6
6. 23.(금)	24.0	21.9	2.1	28.0	25.7	2.3	20.0	19.2	0.8	11.4
6. 24.(토)	23.5	21.9	1.6	27.0	25.6	1.4	20.0	19.2	0.8	12.2
6. 25.(일)	23.0	22.0	1.0	26.0	25.7	0.3	20.0	19.4	0.6	12.8
6. 26.(월)	23.0	22.1	0.9	26.0	25.7	0.3	20.0	19.5	0.5	12.6
6. 27.(화)	23.0	22.4	0.6	26.0	26.0	0.0	20.0	19.7	0.3	9.5
6. 28.(수)	23.0	22.6	0.4	26.0	26.1	-0.1	20.0	19.9	0.1	8.5
6. 29.(목)	23.0	22.7	0.3	26.0	26.2	-0.2	20.0	20.0	0.0	9.2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6월 22일~6월 29일, 여수 기준)

- 평균기온 : 23.1℃ (평년대비 1.6℃ 높음)
- 최고기온 : 25.5℃ (평년대비 1.2℃ 높음)
- 최저기온 : 20.8℃ (평년대비 1.2℃ 높음)
- 강 수 량 : 12.8mm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23.1	21.6	1.6	25.5	24.3	1.2	20.8	19.6	1.2	12.8
6. 22.(목)	23.5	21.3	2.2	27.0	24.2	2.8	20.0	19.2	0.8	10.1
6. 23.(금)	23.5	21.3	2.2	26.0	24.1	1.9	21.0	19.3	1.7	13.5
6. 24.(토)	23.5	21.3	2.2	26.0	24.1	1.9	21.0	19.3	1.7	15.7
6. 25.(일)	23.0	21.5	1.5	25.0	24.3	0.7	21.0	19.4	1.6	16.3
6. 26.(월)	22.5	21.6	0.9	25.0	24.3	0.7	20.0	19.6	0.4	15.6
6. 27.(화)	23.0	21.7	1.3	25.0	24.5	0.5	21.0	19.7	1.3	12.4
6. 28.(수)	23.0	21.9	1.1	25.0	24.6	0.4	21.0	19.9	1.1	9.6
6. 29.(목)	23.0	21.9	1.1	25.0	24.5	0.5	21.0	20.0	1.0	9.2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2.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2017. 06. 16. ~ 06. 30.)

농촌진흥청은 벼 병해충, 과수 병해충, 채소류 역병, 탄저병, 바이러스병 등에 대한 병해충 발생정보를 발표하오니 농작물 관리를 철저히 하여 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보** :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복숭아순나방, 진딧물류
 - 발생이 빠르고 일부지역에서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찰·방제 철저, 특히 돌발해충은 방제일정에 맞추어 공동방제 실시
- **주의보** : 검역병해충(과수 화상병, 가지검은마름병)
 - 세균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봉지 씌우기 작업, 전정 작업 시 작업 도구를 철저히 소독하고 발생 과원의 잔재물 등 외부로 유출금지, 의심 증상 발견 시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로 즉시 신고
- **예보** : 벼물바구미, 멸강나방, 이화명나방 등
 - 예찰을 철저히 하여 발견 시 적용약제로 발생 초기에 방제
- **예보** : 역병, 탄저병, 바이러스병, 총채벌레류, 가루이류 등
 - 작물재배 환경관리(배수, 온·습도) 철저, 예찰 및 발생초기 방제
- **예보** : 과수 검은별무늬병, 갈색무늬병, 세균구멍병 등
 - 예방위주의 사전방제(봉지씌우기 전 중점방제) 실시
- **예보** : 과수 잎말이나방, 각지벌레류 등
 - 성페르몬 트랩 등을 이용하여 정밀예찰 실시, 발생초기 적기방제

※ 본 병해충 발생정보는 <http://nongsaro.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3.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사과 생육 및 가격

- 사과 생육 : 병해충 없어 생육 양호하나, 일부 지역 우박피해 입어
 - 올해 사과 생육은 병해충 발생 정도가 적어 전년 및 평년보다 좋은 것으로 조사
 - 경북 안동 및 충남 예산(5.13.), 전남 장성 및 곡성(5.31.), 경북 일대(6.1.)에 우박이 내려 수확기 비상품과 비율이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사과 가격 : 6월 사과 가격 전년대비 상승 전망
 - 6월 이후 사과 출하량은 저장량 감소로 전년보다 6% 적어 6월 사과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 2만 3,100원 보다 높은 상품 10kg 상자에 3만 3천원으로 전망

배 생육 및 가격

- 배 생육 : 배 생육상황 전년대비 양호하고 착과수도 늘어
 - 5월 말 기준, 배 생육은 양호하여 전년보다 좋은 것으로 조사
 - 2017년 배 착과수는 기상호조로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 2016년 최대 결실량을 보였던 전남 나주·순천·영암 등 꽃눈 고사 현상으로 전년보다 착과수가 감소, 평년보다는 많은 것으로 조사
- 배 가격 : 6월 배 가격 전년대비 높을 전망
 - 6월 이후 출하량은 잔여 저장량이 적어 전년대비 14% 감소한 1만 2천톤 내외로 전망된다. 6월 신고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 4만 800원보다 높은 상품 15kg 상자에 4만 9천~5만 2천원으로 전망

복숭아 생육, 생산량 및 가격

□ 생육 : 복숭아 생육상황 전반적으로 좋아

- 복숭아 생육상황은 기상이 양호하여 전반적으로 좋은 것으로 조사, 2016년 경북을 중심으로 피해가 컸던 세균성구멍병 발생률이 감소
- 전남 (5.31.) 및 경북(6.1.) 일대에 내린 우박으로 피해가 있는 것으로 조사, 전남 순천의 피해 정도가 큰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전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
- 또한 생육기 가뭄 현상이 나타나면서 조생종을 중심으로 과 비대 불량에 우려되나, 직접적인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조사

□ 생산량 : 올해 복숭아 생산량 전년대비 증가 전망

- 2017년 복숭아 생산량은 전년대비 11% 많은 29만 5천톤으로 추정

□ 가격 : 6월 천도 가격 전년대비 하락 전망

- 6월 천도계 출하량은 전년대비 2% 증가할 것으로 전망,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 1만 7,000원보다 낮은 상품 5kg 상자에 1만 5천~1만 7천원으로 전망

단감 생산량 및 개화

□ 생산량 : 올해 재배면적 전년보다 3% 감소

- 단감 재배면적은 도시화 및 농가 고령화로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 2017년 단감 재배면적도 가격 하락 영향 등으로 전년보다 3% 감소한 9,699ha로 추정, 유목면적은 전년대비 1%, 성목면적은 3% 감소한 것으로 조사

○ 지역별 재배면적

(단위 : ha, %)

구 분	경 남	전 남	기 타	전 체
2017년	5,740	3,191	768	9,699
2016년	5,979	3,239	784	10,002
비 중	59.8	32.4	7.8	100
증감률	-4.0	-1.5	-2.0	-3.0

□ 개화 : 2017년 단감 개화 상태 양호

- 2017년 단감 개화 시기는 전년보다 평균 이틀 정도 늦고, 평년 보다는 이른 것으로 조사
- 단감 개화 및 생육상황은 기상이 양호하여 전반적으로 양호, 농가는 상대적으로 관수기술 보급률이 낮아 전남을 중심으로 가뭄 피해가 다소 있는 것으로 조사

○ 단감 꽃수(전년대비)

(단위 : %)

구 분	경 남	전 남	기 타	전 체
증감률	-5.3	0.7	-2.2	-3.1
면적비중	59.8	32.4	7.8	100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홍차용 품종 개발 착수, 국산품종으로 유기재배 수출단지 조성

- 병해, 추위에 강한 차나무 유기재배 품종 개발 박차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기후 변화와 재배환경에 적합하고 병해와 추위에 강한 차나무 품종을 육성하여 국산품종으로 유기재배 수출단지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 전남지역 차 유기재배 면적은 399ha(110농가)로 일반농가 중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유기재배 기술과 국산품종 식재 및 관리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 차산업연구소에서는 그동안 수량과 품질이 우수한 참녹·보향 등 14품종을 육성하였고 최근에 수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홍차용 품종개발도 착수, 병해충에 강하고 수량이 우수한 전남18, 19호 계통에 대한 최종 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보성 대한다원에 전남도에서 육성한 참녹 품종을 1ha에 유기재배 실증시험을 추진한 결과 내한성이 강하고 생육이 우수한 결과를 보여, 내년 부터 국산품종을 이용한 차 제품이 생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5.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7. 06. 19.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6/19)	1주일전 (06/1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량작물	쌀(일반계)	20kg	31,800	31,800	31,800	36,200	41,467	↓ 12.2	↓ 23.3
	콩(백태)	35kg	170,600	170,600	172,000	150,000	162,800	↑ 13.7	↑ 4.8
	고구마(밤)	10kg	28,800	27,000	27,080	30,700	32,620	↓ 6.2	↓ 11.7
	감자(수미)	20kg	29,400	35,000	53,480	22,700	24,033	↑ 29.5	↑ 22.3
채소류	배추(봄)	1kg	470	470	400	573	522	↓ 18.0	↓ 10.0
	양배추	10kg	3,600	4,000	4,100	6,575	6,165	↓ 45.2	↓ 41.6
	오이(다다기계통)	10kg	14,667	16,000	13,200	15,083	16,606	↓ 2.8	↓ 11.7
	애호박	8kg	13,400	14,400	12,960	14,700	13,060	↓ 8.8	↑ 2.6
	건고추(화건)	60kg	590,000	546,000	546,000	710,000	778,667	↓ 16.9	↓ 24.2
	풋고추	10kg	35,800	37,800	43,760	33,800	36,080	↑ 5.9	↓ 0.8
	마늘(깐마늘)	20kg	128,000	131,400	135,160	179,000	106,240	↓ 28.5	↑ 20.5
	양파	20kg	21,400	22,200	20,080	14,450	16,203	↑ 48.1	↑ 32.1
	당근	20kg	31,600	33,200	33,600	30,100	31,947	↑ 5.0	↓ 1.1
	대파	1kg	1,370	1,410	1,612	1,830	1,738	↓ 25.1	↓ 21.2
	파프리카	5kg	13,600	16,000	18,720	14,450	18,740	↓ 5.9	↓ 27.4
	참외	10kg	29,800	27,000	45,640	33,300	32,060	↓ 10.5	↓ 7.0
	토마토	10kg	18,000	16,800	22,480	13,300	15,100	↑ 35.3	↑ 19.2
	방울토마토	5kg	17,600	16,800	19,880	12,050	12,137	↑ 46.1	↑ 45.0
	수박	1개	14,600	15,400	17,160	12,850	13,047	↑ 13.6	↑ 11.9
과일류	사과(후지)	10kg	37,800	38,800	39,520	36,000	50,791	↑ 5.0	↓ 25.6
	배(신고)	15kg	47,800	48,200	44,200	45,500	51,167	↑ 5.1	↓ 6.6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6/19)	1주일전 (06/1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21,000	521,000	519,000	536,000	553,000	↓ 2.8	↓ 5.8
	느타리버섯	2kg	12,200	12,400	11,640	14,425	14,222	↓ 15.4	↓ 14.2
	새송이버섯	2kg	7,800	7,800	7,360	7,550	7,930	↑ 3.3	↓ 1.6
축 산 물 (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7,898	7,736	7,800	7,581	6,452	↑ 4.2	↑ 22.4
	돼지고기(삼겹살)	100g	2,267	2,258	2,227	2,180	2,087	↑ 4.0	↑ 8.6
	닭고기	1kg	5,615	5,852	5,820	5,541	5,590	↑ 1.3	↑ 0.4
	계란(특란)	30개	7,967	7,957	7,990	5,374	5,571	↑ 48.3	↑ 43.0
	우유	1리터	2,527	2,527	2,528	2,546	2,479	↓ 0.7	↑ 1.9

※ 가격변동폭이 30% 이내 ↑↓, 31~70% ↑↓, 70% 이상 ↑↓ 으로 표시함

1개월전, 1년전은 해당일자 기준 5일 이동평균 가격임

평년은 5년간(금년 제외) 해당일에 대한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임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7. 06. 19. 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률(%)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5,388 천원	5,274 천원	5,972 천원	↑ 2.2	↓ 9.8
	거세	6,563 "	6,614 "	7,406 "	↓ 0.8	↓ 11.4
송아지 (6~7월)	암	3,140 "	3,039 "	3,255 "	↑ 3.3	↓ 3.5
	수	3,927 "	3,839 "	4,018 "	↑ 2.3	↓ 2.3
육우(600Kg)		2,602 "	2,868 "	3,410 "	↓ 9.3	↓ 23.7
젖소수송아지(7일령)		183 "	192 "	387 "	↓ 4.7	↓ 52.7
돼지(110kg)		491 "	474 "	461 "	↑ 3.6	↑ 6.5
육계(원/kg)		1,476 원	2,056 원	1,535 원	↓ 28.2	↓ 3.8
계란(원/특란10개)		2,086 "	2,113 "	984 "	↓ 1.3	↑ 112.0
오리(원/kg)		2,667 "	2,667 "	1,667 "	- 0.0	↑ 60.0

※ 생산비('16) : 한우(거세우) 5,976(송아지 가격 2,885), 육우 3,726천원, 돼지 267천원, 육계 1,244원/kg, 오리 1,944원/kg, 계란 974원/10개, 우유 760원/ℓ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농협축산정보센터

6.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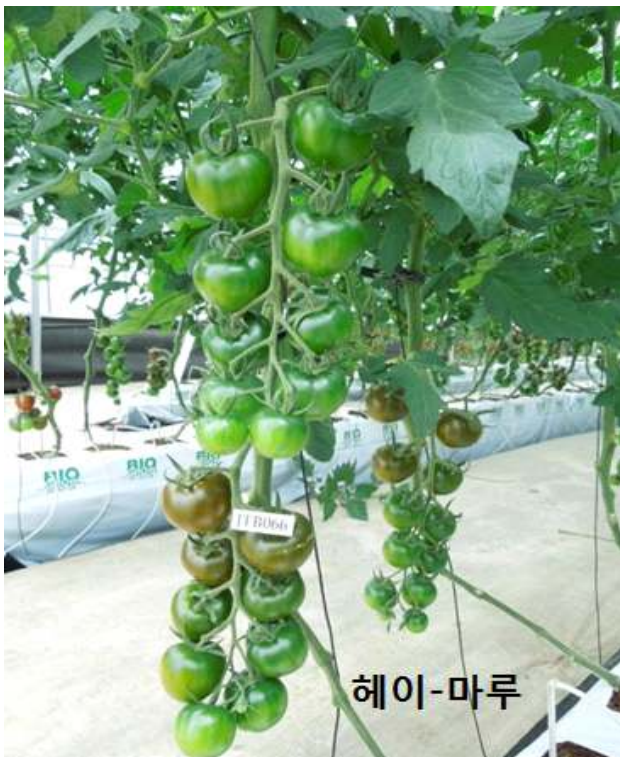
■ 토마토(헤이-마루)

□ 육성배경 및 필요성

- 최근 토마토 소비 트렌드 변화(소형, 기능성) 행태에 대응
- 토마토 수입종자 대체로 자급화 및 농가경영 안정화
- 검정토마토 신품종 육성으로 종자수출화 기반 조성

□ 품종 주요특성

- 초세가 안정되어 있고 무한형태로 숙기가 비교적 빠름
- 과실은 검붉은색으로 균일하며 과실면의 광택이 좋음
 - 과중은 80g 정도이며, 1화방 당 8과 착과
- 생식용으로 항산화물질(라이코펜)과 베타카로틴 함량이 많음



【헤이-마루】



【쿠마토】

□ 적응지역

- 전국(반축성재배)

□ 재배상 유의점

- 고온에는 과색의 색택과 열과의 현상이 발생하므로 고온기 수확은 피하는 게 좋다.
- 착과는 수정벌을 이용하여 착과시키고 가급적 생장호르몬 착과제는 피한다.
- 검정토마토 검붉은색의 색택을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초세가 강하고 비분이 충분히 유지 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보급계획 및 파급효과

- 검정토마토 보급 연중 계획 : ('16) 1.5 → ('18) 10ha
- 수입(대비)품종에 비해 수량 12% 높음 : 4,241 → 4,776 kg/10a
- 검정토마토 품종육성으로 수입대체 효과 : 4~5억/년



【헤이-마루】



【쿠마토】

육성품종 과실비교(2016)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서종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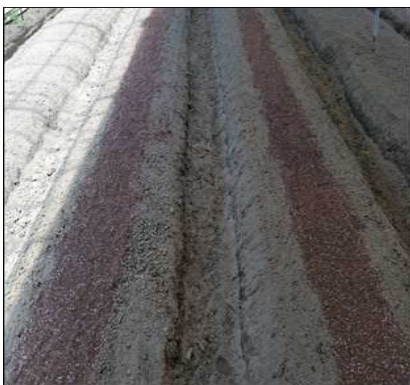
■ 멜론 친환경 재배 시 뿌리혹선충 초기감염 회피 요령

□ 영농기술·정보 내용

- 로터링 후 두둑을 만들고, 정식부위를 너비 15cm, 깊이 15cm로 파서 원예용 상토를 주변보다 약간 높게 채움, 이 때 상토내로 흙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 관수라인을 설치하고, 비닐로 두둑을 멀칭함
- 묘를 재식거리에 맞게 상토에 정식하고, 주변 흙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
- 상토에 물이 젖는 속도가 느리므로 초기 물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 멜론에서 방제가 필요한 선충밀도는 토양 100cm³ 당 2기 유충 10마리 내외임

□ 기대 및 파급효과

- 멜론 친환경재배 시 정식초기에 건전한 뿌리를 충분히 확보 가능
- 선충 방제를 위한 고가의 유기농업자재 대체 가능



【좌 : 원예용 상토충진, 우 : 초기감염 회피】

【관행 : 중심뿌리 감염】

원예용 상토 충진에 따른 선충 초기감염 회피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 마경철, 최덕수, 김효정, 이진희

■ 광량을 이용한 고온기 파프리카 재배 생육예측

□ 배경 및 필요성

- 농업기술길잡이 자료에는 파프리카 생육량 예측을 통한 적심시기 및 인력투입 시기에 관한 정보부재로 파프리카 생산단가 하락에 따른 경영비 절감을 위한 기술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스마트팜에서 활용되고 있는 복합환경제어기에서 도출된 광량 자료를 활용한 파프리카의 작물 성장량과 수량예측모델 개발 및 현장 활용

□ 영농기술·정보 내용

- 4~5월에 정식하는 파프리카 『시로코』, 『볼란테』 품종 재배 시 온실의 복합환경제어기에서 도출되는 적산광량을 예측수식에 대입하면, 초장, 마디성장량 등을 예측하여 적심 및 적엽작업 시 인력투입시기를 결정할 수 있음
- 초 장
 - 시로코 : $Y=0.089 \times (\text{가식 후 적산광량}) + 2.94$
 - 볼란테 : $Y=0.091 \times (\text{가식 후 적산광량}) - 0.43$
- 마디 수
 - 시로코 : $Y=0.0154 \times (\text{가식 후 적산광량}) + 2.50$
 - 볼란테 : $Y=0.0149 \times (\text{가식 후 적산광량}) + 2.75$

□ 기대 및 파급효과

- 적심시기 예측을 통한 노동력 투입량 계산으로 노력비용 10% 절감예상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김효중, 손동모, 김성준

■ 벼메뚜기 사육에 알맞은 여름과 겨울철 먹이식물

□ 배경 및 필요성

- 벼메뚜기의 농가 사육 증가로 먹이원 수급에 어려움 해소
- 벼메뚜기 연중사육 기술 개발로 안정적인 먹이식물 재배에 관한 농가 요청

□ 영농기술·정보 내용

- 벼메뚜기 연중사육 개발을 위한 먹이원 선발
 - 겨울작물 : 밀·IRG
 - 여름작물 : 옥수수·교잡수수

※ 사육온도 : $28 \pm 2^{\circ}\text{C}$, 사육밀도 : 7,000수/ m^2

○ 겨울작물 선호도 및 생육특성

구 분	밀	IRG	겉보리	귀 리	트리티케일
약 충	54.3	22.8	8.7	7.0	7.0
성 충	60.3	24.5	3.7	5.6	5.6
생체기간(일)	69	53	32	34	30
생체중(g)	0.58 ± 0.02	0.52 ± 0.01	0.28 ± 0.01	0.29 ± 0.01	0.19 ± 0.02

○ 여름작물 선호도 및 생육특성

구 분	옥수수	교잡수수	수 수	조	기 장
약 충	37.6	35.7	15.5	12.8	-
성 충	32.4	32.4	21.6	13.5	-
생존기간(일)	106	94	52	43	5
생체중(g)	0.64 ± 0.02	0.61 ± 0.07	0.48 ± 0.05	0.39 ± 0.04	-

□ 기대 및 파급효과

- 기존 연 1회 사육에서 연 3~4회 사육으로 생산량 3~4배 증가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곤충잡업연구소 김현진, 강성주, 김선곤, 김용호

■ 전남농기원, 가뭄극복 과수원 관리 당부

- 7~10일 간격으로 물 줘야... 해충방제 철저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최근 1개월간 강수량이 25mm로 전년대비 90mm, 평년대비 95mm가 적음에 따라 가뭄으로 인해 과수원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 과수원 토양에 수분이 부족하면 과실 비대가 나빠지고 양분 흡수가 어려워져 수세가 약해지며 일소과(햇별 데임 과실), 꼭지들림 등 생리장해가 늘어나게 된다.
- 과수원에 비가 7~10일 동안 내리지 않을 때에는 물주기를 일정한 간격으로 지속해서 줘야한다.
- 과수원에 1회 물주는 양과 간격은 토성에 따라 다르다. △사질토양에서는 20mm을 4일 간격 △양질토양은 30mm을 7일 간격 △점질토양은 35mm를 9일 간격으로 줘야한다. 10a 당 1.0mm의 물주는 양은 1톤에 해당한다.
- 물 공급이 충분하지 않거나 관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과수원에서는 나무 밑의 풀은 수분 경합을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베어 주고, 나무뿌리가 분포된 부분의 지면에 퇴비, 짚, 풀, 비닐 등을 깔아줘 토양 내 수분 증발을 방지해야 한다.
- 또한, 가뭄이 지속되면 해충 발생이 늘어나며 응애, 총채벌레, 복숭아순나방 등을 중점적으로 방제해야 한다. 최근 갈색날개매미충 등 돌발해충이 순천·곡성·구례 등 농경지와 산림지역에서 발생이 늘어나고 있다.
- 이를 방제하기 위해서는 농경지뿐만 아니라 인근 산림지역까지 적용약제를 충분히 살포해야 효율을 높일 수 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전남농기원, 1시군 1특화작목 육성 박차

- 작목별 전문가 구성... 맞춤형 현장 컨설팅 추진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전국 제일의 『1시군 1특화작목 육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현장 기술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현장 기술지원단은 작목별 전문가인 교수, 연구·지도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여 영농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사전에 파악해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 1시군 1특화작목 육성사업은 침체된 지역농업의 활로를 찾기 위해 2017년도에 6개 시군에 30억원(도비 30, 시군비 40, 자부담 30%)을 집중 투입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자립형 특화작목을 선정, 생산기술·저장·가공·R&D·교육·예산을 집중 투입해 농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 금년에 선정된 1시군 1특화작목은 △순천시 국가정원 1호의 정원산업 발전을 위한 화훼도시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화훼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6차산업화, △광양시 생강 특화작목 육성, △고흥군 석류 고품질 안전재배, △장흥군 블루베리 조기수확 및 가공상품화, △함평군 생대추 명품화, △영광군 모시산업 활성화 체계 구축사업 등이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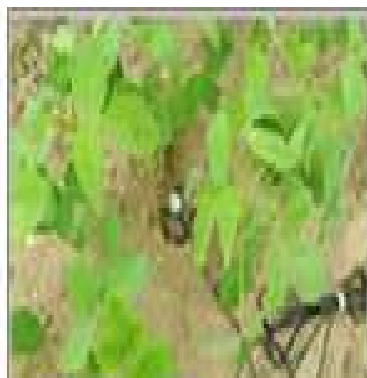
■ 가뭄 대비한 밭작물, 똑똑한 물 관리가 관건

- 정밀 자동 물 관리 기술개발... 생산성↑ 물 사용량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가뭄과 농업용수 부족에 대비해 밭작물에 사용하는 농업용수를 절약하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정보통신(ICT) 기반의 정밀 자동 물 관리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 현재까지 농작물 정밀 물 관리기술은 주로 시설재배지의 원예작물을 대상으로 개발돼 왔다. 그러나 하우스를 설치하지 않은 밭작물 재배에도 안정 생산과 농업용수 절약을 위해 효과적으로 작물에 물을 덜 수 있는 자동 물 관리 기술개발과 적용 확대가 요구돼 왔다.
- 현재 밭작물은 인력으로만 물 관리를 하고 있으며, 관개 자재의 반복적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노동력과 비용이 가중되고 있다.
- 최근 작물의 생육기간 중 가뭄지수 증가로 밭작물 수량 변동이 심화되고 있다. 2016년 자료를 보면 물이 가장 필요한 시기인 8월 강우량은 76.2mm로 30년 평균 강우량의 28%에 불과해 밭작물(콩) 수량성이 예년에 비해 18% 감소했다.
- 농촌진흥청에서는 밭작물 안정 생산과 강우량의 불균형 및 가뭄지수 증가로 인한 물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간 토양수분 자동계측 및 관개 자동제어 무선통신 기술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정밀 자동 물 관리시스템을 개발했다.
- 정밀 자동 물 관리기술은 토양수분을 자동계측하고 관수시점, 관수시간, 관수량 등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제어기로 작물에 필요한 양의 물을 제 때에 공급할 수 있는 자동 물 관리체계다.

- 발작물 재배에 이 기술을 활용하면 기존의 인력 의존형 관개 방법보다 초기 설치비용은 더 발생한다. 물 사용량이 10~20% 줄고, 정밀 자동 물 관리 기술 적용으로 무관개 대비 발작물(콩) 수량은 36~50% 향상되었다.
- 또한 관개 방법별 효율성을 평가한 결과, 정밀 자동 물 관리 기술을 활용한 지표점적관개가 92%로 분수호스 78%, 스프링클러 89%에 비해 가장 높았고, 관개량은 분수호스 대비 지표점적관개가 48.9%, 스프링클러 대비 21.6% 절약돼 물 부족 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정밀 자동 물 관리 기술은 2017년 콩 재배농가 시범농가를 대상으로 영농현장 실증을 거친 후, 2019년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시범농가에 적용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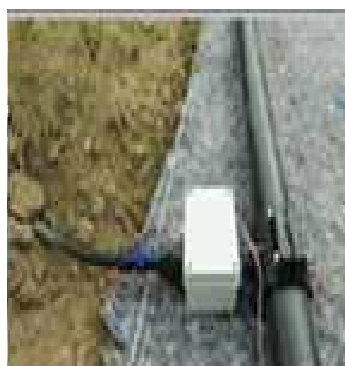
* 출처 : 농촌진흥청



【토양수분 계측】



【전자 자동 밸브】



【관수량 계측】



【자동제어 시스템】

■ 색깔감자 『자영·홍영』 으로 건강한 여름나기

- 항암·항산화 성분 가득한 감자의 요리법 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건강한 여름을 나기 위해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한 색깔감자 『자영』 과 『홍영』 의 다양한 건강 요리법을 소개했다.
- 감자는 비타민C가 풍부해 더운 여름철 쉽게 지치지 않게 하는 건강식품이며 일반적으로 하지쫄에 수확한다고 하지감자로도 불린다.
- 농촌진흥청이 품종 개발한 색깔감자 『자영』 과 『홍영』 은 샐러드, 찜, 냉채, 초절임, 생즙 등 다양한 요리로 활용이 가능하다.
- 기능성 성분이 가득한 자주색 감자 『자영』 과 붉은색 감자 『홍영』 을 먹으면 건강 유지와 질병예방을 기대할 수 있다.
- 『자영』 은 짙은 자주색 감자로, 자영 추출물에서 항암활성을 분석한 결과 전립선암 억제활성이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영』 은 붉은색 감자로, 안토시아닌 외에도 항산화·항염증·항암 작용을 하는 다양한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 있다.
- 자영과 홍영은 아린 맛이나 비린 맛이 없어 생으로 먹거나 샐러드, 소스로 이용하면 좋으며, 만드는 방법도 간단해 누구나 쉽게 건강한 색깔감자 요리를 맛볼 수 있다.
- 눈도 즐거운 『색깔감자 냉채』 = 색깔감자는 껍질을 벗기고 얇게 채 썰 후 찬물에 헹궈 건져 물기를 없앤다. 오이·당근·파프리카(빨강, 노랑)도 감자의 크기에 맞춰 채 썰 후 접시 가장자리에 가지런히 돌려 담는다. 간장, 올리브오일, 레몬식초, 설탕, 다진 마늘, 통깨 등을 넣어 만든 간장소스를 끼얹어 먹는다.

- 새콤달콤 입맛 돋는 『색깔감자 초절임』 = 깨끗하게 씻은 감자를 채칼로 저민 후 바로 찬물에 씻어 건져놓는다. 식초, 설탕, 소금을 3:3:1 비율로 잘 섞어 배합 초를 만들어 저민 감자를 담가 서너 시간이 지나면 먹는다.
- 생감자 채와 찰떡궁합 『색깔감자 요거트 소스』 = 플레인 요거트에 레몬즙을 짜 넣고 다진 허브와 소금, 후춧가루를 넣고 잘 섞어 소스를 만든다. 색깔감자를 가늘게 채 썰어 소스를 얹어낸다. 색깔감자뿐만 아니라 과일이나 채소샐러드에 곁들여도 좋다.
- 자영과 홍영 색깔감자는 재배농가와 인터넷으로 직거래하거나 씨감자 생산업체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일반마트 등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 출처 : 농촌진흥청



【색깔감자 자영】



【색깔감자 홍영】

■ 체리품종 선택 시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국내에서 재배하는 체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13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전북 완주군)에서 평가회를 실시했다.
- 체리 수입량은 2011년 5,000톤에서 2016년 13,800톤으로 급증했다. 체리 수요가 크게 늘면서 국내 체리산업도 동반 성장해 2014년 200ha에 불과하던 체리 재배면적은 최근 3~4년 사이 두 배 이상 높은 500ha로 추정된다.
- 이번 평가회는 체리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체리 재배 시 주의할 점과 품종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교육한다. 또한 체리 30~40품종을 전시해 국내에서 재배된 품종과 수입 체리와의 경쟁력을 비교하고 국내 재배 적합성에 대해 평가할 예정이다.
- 먼저, 체리는 수확 전 과실 터짐(열과)이 발생하기에 품종 선택 시 비가림 재배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비가림 시설 없는 노지 재배는 비가 많이 오는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수확이 끝나는 조·중생종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 다음으로, 체리는 자신의 꽃가루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불화합성이 강해 한 품종만 심을 경우 열매가 전혀 맺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수분수(꽃가루를 주는 품종)를 20~30% 함께 심어 줘야 한다.
- 품종이 달라도 꽃가루 친화성이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적어도 3~4품종 이상을 섞어 심는 것이 바람직하다.

- 마지막으로, 체리 품종 선택 시 생산성이 높은 품종을 심는 것이 좋다. 농가에서는 국내 재배특성이 검증되지 않은 최신 품종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으나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 국내에서 유통되는 체리 품종은 크게 일본에서 도입된 붉은색 계열의 품종과 미국 또는 캐나다에서 도입된 흑자색 계열의 품종이 있다.
- 『좌등금』 등 대부분의 일본 품종은 당도가 20°Brix 이상으로 높으면서 새콤달콤한 맛이 조화로워 국내 소비자의 입맛에 잘 맞다. 또한 우리나라 기후에도 잘 맞아 생산성이 뛰어나다. 반면 과일 크기가 다소 작고 과육이 물러 유통과 저장이 어렵다.
- 국내에서 가장 많은 양이 수입되고 있는 미국산 『빙』을 포함한 흑자색 계열의 품종은 과일이 크고 당도가 높아 맛이 좋고 아삭한 육질을 가지고 있어 유통이 편리하다. 그러나 수확시기가 장마와 겹치는 만생종 품종이 많고 생산성이 낮은 단점이 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새끼 돼지 섞어 기르면 농장 생산성 쑥쑥

- 이른 시기 합사(合飼)... 서열 투쟁 줄고 고르게 자라 -

- 돼지를 이른 시기에 다른 개체와 섞어 기르면(합사) 농장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돼지의 젖을 떼기 전 다른 개체와 섞어 기르면 이른 시기 서열이 결정되고 친밀감도 늘어, 스트레스는 줄고 고른 돼지 생산으로 농장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 일반적으로 돼지는 태어난 뒤부터 젖을 땔 때(21~28일)까지 친어미 밑에서 친형제들과 자라다, 젖을 땔 후 어미와 분리되며 다른 개체와 함께 자라게 된다.
- 이때 돼지는 어미와 떨어진다는 것과 낯선 환경, 서열투쟁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는 농장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 연구진은 돼지 120마리를 대상으로 △한 집단은 28일 동안 친형제·친어미와 기르고 △다른 집단은 10일 동안 친형제·친어미와 함께 기르다 11~28일까지는 친형제·친어미와 더불어 다른 새끼들과 섞어 기르며(어미 3리+새끼 30마리로 집단 형성) 행동 유형을 관찰했다.
- 그 결과, 섞어 기른 집단의 서열 투쟁은 평균 0.86회로, 친형제와 함께 자란 집단(평균 2.35회)보다 1.49회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장률 또한 섞어 기른 집단의 1마리당 체중이 3%(8.04→8.27kg) 높았고, 하루 체중 증가량도 5.4%(277→292g) 더 높게 조사됐다.

- 섞어 기른 집단은 동반성장의 편차가 적어(1.68→0.94%) 새끼돼지 모두가 고르게 자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 면역반응은 섞어 기르기 전과 후 모두 면역 단백질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있어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인 『아세아·태평양축산학회지 (Asian-Australasian Journal of Animal Sciences)』에 실렸다.
- 농가에서 이를 적용하려면 기존 분만 시설에서 분만 후 10일까지는 이전 방법으로 사육하고, 출생 11일째에 분만 펜(틀) 사이의 분리 벽을 제거해 이웃한 어미돼지의 새끼들을 섞어 사육한다.
- 어미돼지와 새끼돼지를 1집단으로 총 3집단 정도를 권장하며, 물 먹는 곳이 분리 벽에 설치된 경우에는 별도의 음수장치를 보완해야 한다.
- 농촌진흥청 양돈과 조은석 농업연구사는 “어린 시기에 미리 여러 개체와 친밀감을 늘려주면 스트레스가 줄고 성장 균일도 향상에도 도움이 돼 최종적으로 농가의 생산성 향상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여름철 닭 관리요령 제시

- 육계 사육밀도 10~20% 줄이고... 비타민제·전해질제 활용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여름철 닭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양계 사양관리 요령을 제시했다.
- 닭은 땀샘이 없어 체온 발산이 어렵기 때문에 고온(30℃ 이상)이나 공기열량지수 2,300 이상의 환경에서는 입을 벌려(헐떡거림) 체온을 발산한다. 이때 고온 스트레스를 최소화해주지 않으면 생산성이 낮아지거나 죽을 수 있다.
- 2016년 더위로 인한 가축 피해(폐사) 건수는 418만 마리(2016. 8. 24. 기준)였으며, 닭이 가장 피해가 컸다(395만 4천 마리)
- 농촌진흥청은 올해 더위가 일찍 시작됨에 따라 닭이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 먼저 닭장(계사) 지붕 위에 물을 뿌리거나 차광막을 설치하면 내부 온도를 낮출 수 있다.
- 무창계사(창 없는 닭장)는 환기팬의 속도를 높이고 개방계사도 중간에 연결식(릴레이식) 환풍기를 설치해 내부 공기를 순환해 정체되지 않게 한다.
- 또한, 쿨링패드 같은 냉방장치를 이용할 경우에는 사용 전 물이 새거나 막히는 곳이 없는 지 미리 점검한다.
- 사양관리 측면에서 육계(고기용 닭)는 사육밀도를 10~20% 줄이면 체열 발산으로 인한 온도 상승을 줄일 수 있다.

- 고온에서는 사료섭취량이 주는데 이는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하루 중 가장 시원한 시간대에 닭이 사료를 섭취할 수 있도록 이른 새벽이나 저녁 시간에 사료를 준다.
- 또한, 중조(중탄산염) 0.5~2%, 염화암모늄 0.3~1% 또는 비타민C 등과 같이 사료첨가제를 적절히 활용할 경우 고온 스트레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 물 관리도 중요하다. 일반적인 환경에서 닭은 사료섭취량의 약 2배의 물을 마시는데, 고온에서는 음수량이 사료섭취량의 4~8배까지 는다.
- 신선하고 차가운 물을 충분히 공급하고, 매일 물통을 청소하고 소독해 소화기 계통의 질병을 예방한다.
- 농촌진흥청 가금연구소 강환구 농업연구사는 “올해는 이른 더위에 폭염과 열대야 일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와 준비로 피해를 최소화하자”라고 전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닭장에 설치된 순환팬】



【쿨링패드】

7. 정책 동향

◆ 전라남도, 우박 피해 시설물도 풍수해 보험 보상을

- 손실보상 제도화 정부에 건의 -

- 전라남도가 최근 이상기온 등으로 우박이 자주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작물 시설 재해 피해를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의 보상 대상에 우박 피해 시설물도 포함되도록 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 14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5월 31일 내린 지름 2~10cm의 우박으로 5개 시군에서 1천 891ha의 농작물과 하우스 시설 288동이 피해를 입었다.
- 이런 가운데 담양·곡성·화순의 시설하우스 피해농가 가운데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도 우박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 자연재해 시 정부 지원금을 줄이고 주민 스스로 대처하도록 정부에서 보험금의 86%까지 지원하는 『정책보험』 성격의 풍수해보험은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으로 발생한 재해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한정됐기 때문이다.
-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정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해 『풍수해보험법』에 우박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피해 발생 시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제도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 출처 : 전라남도

◆ 전남도, 가뭄·AI 대책 35억원 추가 지원

- 저수지 준설·AI 차단방역 등 피해 최소화 총력 -

- 전라남도는 가뭄 피해 최소화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 방역을 위해 정부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확보, 도비 포함 총 35억원을 추가로 특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 전라남도는 가뭄이 지속돼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의 경우 항구적 용수 확보를 위한 퇴적토사 준설의 적기라고 판단, 중앙정부에 준설사업비 지원을 긴급하게 요청한 결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8억 4천 200만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 61개 저수지를 준설할 계획이다.
- 저수지 준설 지원대상은 현재 저수율이 30% 이하이고 퇴적토가 많아 저수용량이 적은 곳 가운데 사토장이 확보돼 30일 단기간에 준공이 가능한 저수지를 선정했다.
- 지금까지 예비비 100억원,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25억원, 저수지 준설사업비 15억 8천만원, 재난관리기금 3억원, 특별교부세 25억원에 이어 이번에 추가지원을 포함해 총 197억 2천만원을 지원, 가뭄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전라남도는 또 전국적으로 또다시 발생한 AI 방역 대책을 위해 도비 4억 5천만원과 특별교부세 2억원을 포함, 총 6억 5천만원을 지원해 시군 거점소독시설·이동통제초소 26개소를 운영하고 축산농가 소독지원 사업비로 사용키로 했다.

* 출처 : 전라남도

◆ 소 사육농가 귀표 미부착 등 일제검사

- 전남도, 28일까지 2주간... 소 이력제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 -
- 전라남도는 6월 14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송아지 출생 신고, 귀표 부착 등 축산물이력제 이행실태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 축산물이력제란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해 필요한 경우 그 이력정보 추적을 통해 방역 등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 소를 키우는 농장주는 송아지 출생 후 5일 이내에 지역 축협 등 위탁기관에 신고하고, 축협은 30일 내에 귀표를 부착해야 한다. 귀표를 부착하지 않은 소는 농장끼리 이동이나 도축이 금지된다.
- 이번 점검 대상은 송아지 출생 신고를 한 농가 가운데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 의심되거나, 신고 기한을 넘겨 신고를 한 농가 등을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추출한 345농가다. 시군,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합동으로 문제가 있다고 선정된 소 사육 농가를 방문해 점검한다.
- 출생 등 거짓신고나 귀표를 부착하지 않고 이동하는 등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소 이력관리는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전남지역에선 50만여 마리가 관리되고 있으며, 원활한 귀표 부착을 위해 14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다.

* 출처 : 전라남도

◆ AI로 인한 가금류 취급상인 지원 검토 중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중소기업청과 협의하여 AI로 인해 전통시장 등에서 가금 및 그 생산물을 판매하는 소상공인(닭·오리 판매상 등)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검토 중에 있다.
- 농식품부는 그간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AI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제한으로 인해 추가 사육비용 발생, 상품가치 하락, 입식지연에 따른 기회소득 상실 등에 대해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해 왔으나, 전통시장 등의 가금류 판매상 등에 대한 지원은 없어 이번에 중소기업청과 협업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참고로, 농식품부는 '17. 6. 5일부터 이동제한 조치로 인해 영업제한을 받는 부화장, 도계장, 가금류 가공장, 가축거래상인 등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지원조건 : 연리 1.8%, 2년 거치 3년 상환
- 지원내용 : 원료구입비, 인건비, 각종 수수료 등 제반운영자금
- 지원금액 : 영업 중단기간 동안 발생한 경영 손실액
- 지원대상 : 부화장, 도계장, 유기비료공장, 계란 집하장, 닭·오리 고기 가공장, 사료공장, 가축거래상인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8.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여수시, 명품고구마 생산... 조직배양 우량종묘 보급

- 신청 농업인 200명에 종묘 10만 5,000주 보급 완료 -

-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고품질의 고구마 생산을 위해 조직배양 우량종묘 보급에 나섰다. 4월부터 6월 8일까지 고구마 종자갱신을 신청한 농업인 200명에게 조직배양 무병묘 10만 5,000주를 보급했다.
- 일반적으로 고구마는 자가 채종 종자를 계속 사용할 경우 바이러스에 감염돼 생산성과 품질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그러나 바이러스를 제거한 조직배양묘로 고구마를 재배하면 수확량이 25% 이상 늘고 품질도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
- 시가 이번에 보급한 조직배양묘는 1년간 무병묘 증식과정을 거친 신품종 『풍원미』와 『호감미』 등 4개 품종이다.
- 올해 첫 도입되는 품종 『풍원미』는 베타카로틴 함량이 높고 생육기간이 짧아 조기출하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마찬가지로 첫 도입 품종인 『호감미』는 당도가 높고 덩굴쪼김병에 강해 생산농가와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출처 : 여수시



■ 보성군, 퓨전떡 만들기 교육 실시

- 오는 15일부터 쌀 소비 촉진 분위기 확산 위해 추진 -

- 보성군(군수 이용부)은 6월 15일부터 8월 17일까지 미력면 백수향에서 퓨전떡 만들기 교육을 실시한다.
- 관내 농업인 25명을 대상으로 향토음식 및 전통식문화 계승과 전세대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떡 만들기로 쌀 소비촉진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한다.
- 전통떡 전문가 문현옥 강사를 초청하여 생활속의 떡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교육과 떡 재료 기본 손질법 및 대추약편·송편·꽃떡·찰떡말이·치즈떡케익 등 40여종의 퓨전떡을 만드는 실습 교육을 병행한다.
- 군 관계자는 “우리 쌀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기술을 보급하고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떡 만들기로 전문가를 양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보성군



■ 화순군,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 총력 대응

-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지속되는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농업용수 확보 등 가뭄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13일 화순군에 따르면 관내 저수지 저수율은 61%로 영농에는 지장이 없으나, 지속적인 가뭄 시 천수답 및 일부 밭작물의 피해가 예상된다.
- 이에 따라 군은, 안전건설과장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가뭄대책 비상상황실을 마련하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비상운영 체제에 들어갔다.
- 군은 2억 6,300만원을 들여 한발대비 관정개발 12곳 등 용수개발 사업을 마친데 이어, 엔진양수기 등 119대를 구입해 읍·면에 배부했다.
- 또한 수리시설 점검을 완료하고 긴급보수시설 29곳에 대해 8,400만원을 들여 보수를 마쳤다. 뿐만 아니라 1억 4,000만원을 들여 7곳의 관정을 개발하고, 가뭄이 장기화 될 것에 대비해 가뭄 우심지역을 현지 점검해 피해예방을 위한 하상굴착, 다단양수, 긴급용수개발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 출처 : 화순군



장흥군, 정남진장흥농협 『화끈한 화요 아침장터』 운영

- 정남진장흥농협 하나로마트가 매주 화요일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화끈한 화요 아침장터』를 열어 농민조합원과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이달부터 화요일 아침 1시간 동안 운영되고 있는 아침장터에는 농산물과 수산물, 축산물, 공산품 등 50여개 품목이 반값에 깜짝 할인 판매된다.
- 강경일 정남진장흥농협 조합장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고, 설상가상으로 가뭄으로 고생하는 농민조합원을 위하여 1시간동안 반값 판매를 실시하고 있다”며, “주변 상가의 저렴한 식자재 조달은 물론 가게 부담을 낮춰 잠재고객을 흡수하고, 농협 이미지 제고 및 두터운 고객층 확보를 위해 화요 아침장터를 개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 정남진장흥농협은 조합원의 편익사업 및 복지사업에 주력하는 등 앞으로도 농업·농촌에 희망을 주는 사업을 다각도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출처 : 장흥군



■ 강진군, 친환경 양배추 본격 수확

- 전남 강진군이 친환경 양배추 수확이 한창이다.
- 지난 10년간 17농가 5ha에서 친환경 채소 하우스(성전면 소재) 재배를 통해 소득을 올리고 있다. 겨울에 대파를 수확한 하우스에 양배추를 다시 심어 이모작 재배를 성공한 것이다.
- 현재 수확한 친환경 양배추는 친환경 농산물만 전문적으로 구매하는 업체를 통해 전량 판매되고 있다. 3kg짜리 한통 당 1천 500원 선의 가격에 판매돼 농업인들의 소득을 높여 주고 있다. 양배추 만으로는 큰 소득을 기대하기 힘들지만 겨울대파와 이모작을 통해 과채류 못지않은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 특히 올해 가을부터 간이 비가림하우스를 논에 설치한 후 대파와 양배추 이모작을 추진해 친환경 양배추를 심을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한 것은 물론, 기존 하우스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연작장해에 대비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 강진군농업기술센터 이동근 소장은 “성전면은 친환경 채소단지로 명성이 높는데 다년간의 노하우를 통해 재배와 유통문제를 해결하여 소득을 높이고 있다”면서 향후 지원확대로 농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 강진군



■ 해남군, 미니 밤호박 본격 출하

- 올해 730여톤 생산, 명품 지역 특산물 인기몰이 -

- 한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의 미니 밤호박은 일반 호박에 비해 영양가가 높고 베타카로틴, 비타민 B1·B2·C등이 풍부해 감기 예방과 피부미용 및 다이어트 식품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 특히 해남에서 생산되는 밤호박은 시설하우스와 친환경 덕 시설을 이용한 공중 재배로 품질이 월등하고, 밤맛이 나는 우수한 식감으로 대표적인 지역 명품 특산물로 꼽히고 있다.
- 이번 달 초부터 수확을 시작한 미니 밤호박은 올해 730여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일주일 가량의 후숙기간을 거쳐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게 된다.
- 해남군에서는 200여 농가에서 40.3ha 면적의 밤호박을 재배, 연간 45억여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어 농한기 농가의 중요한 소득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 해남군은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사업을 통해 옥천면과 계곡면을 중심으로 한 해남 중부권에 미니 밤호박을 집중 육성, 올해도 1.3ha에 2억 6,000만원을 지원해 시설하우스와 연중 생산 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 출처 : 해남군



■ 영암군, 애플수박 첫 출하

- 영암군에서는 신 소득작목 실증재배 사업으로 하우스 2동에 애플수박을 재배하여 첫 수확에 성공했다.
- 애플수박은 수박 크기의 1/4 정도로 크기가 작아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요즘 시대에 알맞은 신 소득작목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 애플수박은 껍질이 얇아 사과처럼 깎아서 먹을 수 있고 당도 또한 11°Brix 정도로 기존 수박과 견줄 만하다.
- 아직까지는 생산량이 많지 않아 도포농협에 전량 출하하여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고 수확은 7월 초까지로 계속 될 예정이며 한통 당 가격은 소비자가 7~8천원 정도이다.
- 영암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애플수박 재배면적이 확대되어 우리지역 신 소득작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재배 기술교육 및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 출처 : 영암군



■ 무안군, 가뭄 피해지역에 예비비 긴급 지원

- 예비비 3억 4,900만원 투입, 농업용수 확보 총력 -

- 무안군은 강수량과 저수율이 2016년 대비 크게 줄어들어 가뭄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뭄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3단계 용수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예비비 3억 4,900만원을 긴급 지원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에 나서고 있다.
- 무안군의 가뭄 피해지역 3단계 용수공급 계획안에 따라 긴급 지원하는 예산을 살펴보면 △다단양수 14km △용수로 준설 8km △관정 26개소 보수 △하천 내 포강 10개소 △저수지 물채우기 7개소 △양수시설 보수 △하천준설 2km △포강준설 1개소 등에 투입된다.
- 또한 목포시와의 협의를 통해 몽탄면 달산수원지에서 송수관을 연결하여 삼향읍과 청계면 가뭄 피해지역에 1일 3,000톤의 농업용수를 공급한다.
- 박준수 무안군수 권한대행은 “올해 가뭄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단계별 종합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다”며 “우심 지구에 대한 예찰활동 강화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적기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무안군은 가뭄극복을 위해 현재까지 예비비 10억 4,300만원을 투입하여 관정개발 및 보수를 비롯해 하천하상굴착, 포강설치, 송수호스지원, 양수기 수리 등을 지원했고, 우심지구인 삼향읍 왕산과 지산, 청계면 복길에는 용수공급시설을 설치했으며, 이외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출처 : 무안군

9. 해외 농업정보

◆ 미국, 밀레니얼 세대들의 소비패턴을 파헤쳐라

- 미국 시장 조사 회사인 IRI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 즉,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세대의 소비자들은 영양성분이 높은 음식이나 친환경적인 재료와 포장 등에는 금액이 비싸더라도 구매하는 것을 꺼리지 않음
- 2017년 4월에 진행한 IRI의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0명의 대표 표본 집단의 쇼핑 선호사항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39%이상의 응답자가 추가적 영양적 유익성을 지닌 식품과 음료에 돈을 더 지불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밀레니얼 세대의 경우 48%였음. 그러나 전체적인 소비시장의 매출은 급락하였음
- 2017년 1분기 소비시장의 매출은 1월 기준 2016년과 비교하여 1.5% 하락하였고, 소매 판매매출은 2.6% 하락함
- 소비시장에서 1월과 2월은 일반적으로 매출이 감소하는 시기이기는 하지만 2017년 감소치는 일반적 해보다 증가함. 이러한 감소치의 원인은 새로운 미국 대통령하의 정부가 성립되면서 제도 및 정책변화 등의 과도기에서의 불확실성과 더욱 복잡해진 소매시장과 관련이 있음
- 표본 집단 응답자의 약 45%가 재정적으로 그들의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저임금을 받는 젊은 세대 층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남

-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자들은 낮은 임금을 받으며 학자금 융자를 갚아야 하고, 55%의 밀레니얼 세대는 겨우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만 돈을 벌고 있음. 이 중 33%는 필요한 식료품을 구매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낌. 따라서 이들이 86%는 저렴한 브랜드를 찾으려고 하며 이에 따라서 프로모션과 같은 할인을 찾고 원함
- 60%의 밀레니얼 세대가 식료품 지출을 낮추기 위해 여러 상점에 방문하여 가격을 비교하고 구매를 하고 61%가 종이 형태의 쿠폰을 상점에서 사용하며 48%가 그루폰(Groupon)을 통해 디지털 쿠폰을 사용함
- 밀레니얼 소비자는 프리미엄 상품에 대해 추가적 비용을 지불하고자 하나 소비를 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크지 않음. 프리미엄 상품에 대한 수요는 전체 인구의 39%, 밀레니얼 세대의 48%로 적은 수치는 아니나, 소비자들의 구매능력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음. 따라서 수출업체의 경우 저가판매 전략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프리미엄화를 통한 판매 전략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함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칠레, 건강식음료 판매 증가

- 2016년, 칠레 정부는 칠레 내 판매되는 모든 식품에 라벨링법을 적용하기 시작하였음. 라벨링법은 식품에 함유된 포화지방, 칼로리, 당, 나트륨이 기준치를 초과할 시 제품 전면에 경고 문구를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하였으며, 해당 식품의 교내 판매를 금지함
- 정부의 식품 안전 규제가 강화되며 칠레 소비자의 건강식음료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칠레의 유력 일간지 메르꾸리오(Mercuri)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칠레 총 가구의 99% (전년대비 20% 증가)가 라이트식품(light food)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기준, 칠레의 건강음료(차, 주스류)의 시장규모는 약 2억 9,000달러에 이르며 매출액은 전년대비 9% 성장함. 특히 천연식품 소재 함유 음료에 대한 선호 증가세가 두드러짐
- 2015년, 건강식품(곡물·과채류)의 시장규모는 약 4억달러에 이르며 매출액은 전년대비 9% 성장함. 특히 곡물류의 판매가 전년대비 43% 증가하였음
- 칠레 주요 식품기업은 소비자의 건강식음료 선호 트렌드에 따라 트랜스지방, 나트륨, 설탕 등의 함유량을 줄여 라벨링 미부착 상품의 출시를 가속화함. 또한, 건강식품 개발을 위한 R&D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음
- 또한 칠레 건강식음료시장 경쟁이 점차 과열될 것으로 예상됨. 우리나라 기업은 건강식품을 선호하는 칠레 소비자의 성향을 고려하여 가격경쟁력보다는 품질경쟁력으로 칠레 시장에 진출할 필요가 있음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7. 6. 19.(시카고 선물거래소)

□ 전일 대비 다시 상승한 곡물 선물 가격

○ 밀 선물시장 시황(▲2.4%)

- 밀 선물 가격은 선물 가격은 전 세계 작물 부족을 야기할 수 있는 건조 기후에 대한 우려로 전일대비 2.4% 상승하였음. 밀 가격은 1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음

○ 옥수수 선물시장 시황(▲0.6%)

- 옥수수 선물 가격은 밀 가격의 강세에 동조하며 전일대비 상승하였음. 그러나 최근 주요 옥수수 생산지역에 충분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가격 상승은 제한적임

○ 대두 선물시장 시황(▲0.3%)

- 대두 선물 가격은 대두 가공에 대한 낙관적인 보고서 발표로 인해 강세를 이어갔음. 밀과 옥수수의 강세 또한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10.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도라지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하세요

- 전남도, 7월 말까지 읍·면·동서 접수... m²당 173원 지원 -
- 전라남도는 2015년 12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도라지 값이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정부가 인정함에 따라 해당 재배 임가를 대상으로 7월 31일까지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 이는 도라지의 해당 연도 총 수입량이 3개년 평균 총수입량을 초과하고, 중국으로부터 수입량이 기준 수입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 전라남도는 6월 중 시군 담당자 교육과 재배 임가에 홍보해 신청 서류를 접수, 8~9월 현지조사를 거쳐 연내 피해 임가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도라지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희망 임가는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해당되는 임산물 생산자 또는 단체로서, 한중 FTA가 발효된 2015년 12월 20일 이전부터 직접 생산하고 2016년 도라지 판매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경우다. m²당 피해보전금은 173원으로 개인은 3천 500만원, 법인은 5천만원 한도다.
- 이번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은 FTA 수입 확대로 피해를 입은 임가의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 임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출처 : 전라남도

◆ 전남도, 우박 피해 농가 트라우마 무료 심리상담

- 순천 월등면 피해농가 시작으로 다른 시군도 신청 받아 방문 실시-
- 전라남도는 우박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트라우마 무료 심리상담을 실시한다.
- 이번 트라우마 무료 심리상담은 우박 피해 복구에 앞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도내 농업인의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 전라남도는 16일까지 이틀간 우박 피해가 가장 큰 순천 월등면의 방문심리 상담을 시작으로 피해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피해 5개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방문심리 상담을 시행할 계획이다.
- 전남에서는 5월 31일 국지적으로 내린 굵은 우박과 돌풍으로 순천·곡성·담양·장성·화순 5개 시군 농작물 총 1천 891ha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다.
- 한동희 전라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전남지역에 내린 굵은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농민들이 정신적 충격으로부터 벗어나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라남도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민의 트라우마 심리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와 협약을 통해 심리회복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재난사고로 심리 상담이 필요한 도민은 전남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062-523-0545)로 문의하면 된다.

* 출처 : 전라남도

◆ 일 년 중 낮이 가장 긴 날, 하지(夏至)

- 24절기 중 열 번째에 해당하는 절기, 하지(夏至)는 24절기 중 망종(芒種)과 소서(小暑) 사이에 들며, 오월의 중기로 음력으로는 5월, 양력으로는 6월 21일이다. 천문학적으로는 일 년 중 태양의 적위가 가장 커지는 시기이다.
- 동지(冬至)에 가장 길었던 밤 시간이 조금씩 짧아지기 시작하여 이날 가장 짧아지는 반면, 낮 시간은 일 년 중 가장 길어져 무려 14시간 35분이나 된다.
- 장마와 가뭄 대비도 해야 하므로 이때는 일 년 중 추수와 더불어 가장 바쁘다.
- 남부지방에서는 단오를 전후하여 시작된 모심기가 하지 무렵이면 모두 끝나는데, 이때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다. 그래서 구름만 지나가도 비가 온다는 뜻으로 『하지가 지나면 구름장마다 비가 내린다』라는 속담도 있다.
- 하지가 지나면 모심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서둘러 모내기를 해야 했다. 『하지가 지나면 오전에 심은 모와 오후에 심은 모가 다르다』라는 속담은 여기서 나온 말이다. 또한 이날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고 믿었다.
- 강원도 평창군 일대에서는 하지 무렵 감자를 캐어 밥에다 하나라도 넣어 먹어야 감자가 잘 열린다고 한다. 『하짓날은 감자 캐 먹는 날이고 보리 환갑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하지가 지나면 보리가 마르고 알이 잘 배지 않는다고 한다. 이날 『감자천신 한다』고 하여 감자를 캐어다가 전을 부쳐 먹었다.

* 출처 : 네이버지식정보



주간

전남농업정보

140호
VOL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58213
Tel. 061-330-2593 Fax. 061-335-4199